

## “한국형 CSA 등 재수립해야”

〈공동체 지원 농업〉

### 기획탐사 - 광주·전남 로컬푸드 직매장 허와 실

〈하〉 활성화 방향은

‘팔리지 않는 채소 가져가라’ 영세·고령농 적자 고리 수익 내는 농가도 상품관리·도심 공급 어려움은 여전 자체생산 어려운 품목 인근 시·군서 공급제도화 필요 가공·반가공식품 인정... 드라이브 스루 등 고민할 때

#1 지난 2018년부터 전남지역 군 단위 로컬푸드 직매장에 상추, 대파, 쪽파 등 10여 품목의 채소류를 출하하고 있는 이 모씨(73·여)는 해마다 이어지는 적자에 밥이 넘어가질 않는다. 약 60평의 밭에서 출하를 위해 고된 작업을 하지만 매월 적자만 쌓이고 있는 탓이다. 간혹 흑자가 나는 달에도 수입은 30만원 언저리가 고작이다.

이씨는 “지역농산물 판로를 확대,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시작했지만 영세·고령농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며 “로컬푸드 가 소량 다품종 재배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세농들은 적은 면적에 여러 가지 품목을 생산할 수 없

#2 화순에서 700평의 밭을 가지고 양파, 감자, 블루베리, 백향과 등 약 20가지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문인규씨(72). 문씨는 식당과 농사를 병행하고도 월 80만원 정도의 수익으로 어렵게 생계를 꾸려오다 지난 2015년 로컬푸드를 시작하면서 얼굴에 가득하던 주름이 졌다.

현재 도곡점, 화순점, 광주 남구점 등 3곳의 로컬푸드 직매장에 물량을 납품하며 연 2,5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문씨는 다양한 품목과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비교적 재배가 어려운 열대과일인 블루베리나 백향과 등을

올뿐더러 상추같은 품목은 많은 농가들이 출하해 가격경쟁, 과잉생산 등으로 인해 폐기되거나 수거 대상이 되기 일쑤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채소는 전열 기간이 하루에서 이틀 정도로 매우 짧다”며 “최근에는 직매장 직원이 팔리지 않았으니 도로 가져 가라는 횡포를 부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품종 소량생산하는 젊은 농가들이나 대작농들이 판로를 막아버려 영세농들과 고령농들은 설 자리가 없다”며 “다른 품목을 도전하고 싶어도 재배 지식도 짧고 밭 면적이 한정돼 여러 가지를 병행할 수 없는 만큼 농협이나 지자체에서 경쟁·과잉생산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내놔야 좋겠다”고 덧붙였다.

판매해 품목 경쟁을 줄이고 양파 등 뿌리채소를 수시로 재배해 계절에 상관없이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다.

하지만, 농촌에서 각 지역 매장과 광주 도심의 매장까지 출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전열 기간 등 개선해야 할 점도 여전하다는 게 문씨의 설명이다. 그는 “도시와 농촌이라는 이동거리가 있어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도시민이 현지로 직접 가서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반대로 도시에 직매장을 설치하면 농민이 상품관리와 공급에 어려움이 따를 때 문에 이 같은 문제점을 빠른 시일내 해결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만 지금껏 수백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지원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정착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을 받고있는 로컬푸드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공급·판매 방식의 변화 등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순히 판매장 수를 늘리기보다 인근 지자체와 연계, 소비자의 직접 참여 등 활성화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명대 경영학과 양석준 교수는 “로컬푸드의 단점 중 가장 큰 부분은 매장을 방문했을 때 품목이 부족해 원스톱 쇼핑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는 것이다”며 “자체 생산이 어려운 품목은 인근 시군이나 광역지자체 등에서 공급받아 판매해도 문제가 없도록 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적은 품목 생산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렵다”며 “다품종 소량생산 시스템 연구를 통한 가공 식품을 로컬푸드로 인정해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직매장 사후관리 지침 변경 등 현실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농협대학교 남기포 교수는 “로컬푸드 매장을 하나의 유통 채널로 인식하는 문제점을 지자체와 농협에서 교육을 통해 개선해나가야 한다”며 “생산자·소비자 조직화, 소비자 체험, 농업기술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생산자와 소비자간 거래관계가 아닌 상생 관계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로컬푸드를 소비자와 생산자가 계약을 맺고 농사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한국형 CSA(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공동체지원농업)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며 “운영방식과 직매장 사후관리 지침도 현재에 맞게 개선해야 할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로컬푸드 학습,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한 드라이브 스루, 근거리 배송 등 판매 방식의 변화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면으로 이어짐 /임채민 기자



27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테레이 페블 비치에서 열린 PGA 챔피언스투어 퓨어 인슈어런스 챔피언스에서 우승을 차지한 최경주 선수가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 ‘탱크’ 최경주 한국인 첫 PGA 챔피언스투어 우승

‘코리아 탱크’ 최경주(51)가 한국인 최초로 미국프로골프(PGA) 챔피언스투어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관련기사 14면  
최경주는 27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테레이의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파72)에서 열린 PGA 챔피언스투어 퓨어 인슈어런스 챔피언스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1개로 4언

더파 68타를 쳤다. 최종합계 13언더파 203타로 공동 2위 선수들을 2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오른 최경주는 50세 이상 선수들이 출전하는 PGA 챔피언스투어 무대에서 한국인 첫 우승의 주인공이 됐다. 최경주는 2002년 5월 컴팩 클래식에서 우승, 한국인 최초로 PGA 정규 투어 대회 챔피언에 오른 데 이어 시니어 무대에

서도 한국인 첫 우승 기록을 남겨 한국 골프의 선구자다운 역할을 또 해냈다.

지난주 샌퍼드 인터내셔널에서 연장 접전 끝에 준우승한 아쉬움을 1주일 만에 우승 고지에 오르며 시원하게 털어냈다.

2012년 10월 자신이 호스트로 나섰던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 CJ 인비테이셔널 이후 약 9년 만에 공식 대회에서 우승한 최경주는 30일 경기도 여주시에서 개막하는 KPGA 코리아투어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에 출전하기 위해 귀국한다. /연합뉴스

## 광주·전남 통합 밀그림 그리기 착수

### 내달 연구용역 협약 체결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밀그림을 제시할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 용역 기간이 1년인 점을 고려할 때 광주·전남 행정통합 실행 논의는 민선 8기에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광주시,전남도, 광주전남연구원 에 따르면 시와 도는 연구원에서 수행할 연구 용역 과업에 대한 막바지 조율을 마치고 오는 10월 3차 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행정 통합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와 같은 형태의 경제 통합 ▲초광역 협력 등 방식별로 장단점을 비교·분석할 방침이다. 각각 방식에 따른 사회간접자본, 산업·경제, 문화, 환경 등 분야별 영향을 예측한다.

앞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용역 1년, 검토 6개월을 거친 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로드맵을 제시하기로 지난해 11월 2일 합의했다.

시·도는 통합을 민간중심으로 논의하고, 용역 1년 이후 6개월간 검토를 거친

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6개 항목에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통합논의는 시·도민 화합과 소통 속에서 이뤄져야 하며, 시·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소수의견이 존중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명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와 전남도는 협의를 통해 마련한 과업 지시서를 지난 주 연구원에 전달했다”면서 “연구원에서 검토를 마치는 대로 용역이 시작될 것이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 창조와 혁신을 통해 100년 기업으로!!



다스코(주)는 흥익인간의 이념과 정신을 계승하여 생명을 존중하고 고객이 감동하며 보람을 공유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 2023년 매출 5,000억원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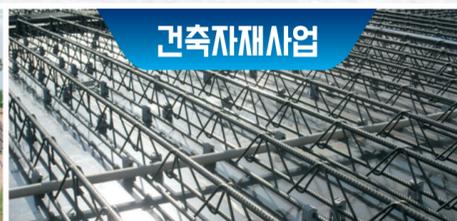
### SOC사업

가드레일 / 교량난간 / 터널 방음벽 / 방음벽



### 신재생 e.사업

육상태양광 / 수상태양광



### 건축자재사업

합판탈형 데크플레이트 / 스틸 데크플레이트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 WBM사업

구조용 선조립 / 용접철근(WBM)  
BIM모델링

## 신기술 개발 선도업체 다스코가 4차산업을 주도하겠습니다.